

# KOBAS 2022 음향세미나 '좋은 사운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Review

글. 박재범 사단법인 한국음향예술인협회(KASA) 회장

매년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되던 KOBAS 쇼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2022년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어 다시 개최되었다. 사단법인 한국음향예술인협회에서는 2021년 말 정기총회로 지도부 구성원이 바뀌었고, 그간 2년의 공백으로 인하여 세미나 기획부터 강사 섭외, 홍보 그리고 접수까지 따로 정해진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세미나 강사 섭외의 기준은 음향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모토로 시작하였다. 사실 KASA(사단법인 한국음향예술인협회)에서 추구하는 음악녹음과 믹싱이라는 주제는 정기적인 KASA Workshop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주제일 수 있지만 방송 음향과 포스트 프로덕션 그리고 아주 드물게 동시녹음이라는 주제로 음향세미나에서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은 많은 교육적 효과와 새로운 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획 의도를 설정했다.

그리고 과거의 세미나는 기획능력과 홍보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일정 부분 아웃소싱을 통해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KOBAS 2022부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지만, 회장 취임 후 어떤 진행 절차를 통해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스스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 기초 기획부터 진행을 기획하였다. 이번 KOBAS 음향세미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기획 자료와 노하우는 다른 세미나와 Workshop에서도 얼마든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

강사 섭외는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라인업과 주변의 추천을 종합하여 기존 4개의 세미나가 아닌 일정을 타이트하게 조정하여 5개의 주제를 가진 세미나로 준비했다. 그리고 세미나 신청방법은 처음에 홈페이지 신청을 받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개편 미비로 인하여 인터파크 티켓링크 준비를 하였고 그것 역시 행정절차 및 준비시간이 용의하지 않아 세미나 2주 전부터 이메일 신청으로 참여자 모집을 준비하게 되었다. KASA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 관계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준비해야 했으며, 사전 신청의 경우 단일 세미나당 이만 원 정도의 실비로 참가할 수 있었다. 이틀간

**좋은 사운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일시: 2022년 6월 29일(수) ~ 6월 30일(목)  
장소: COEX 컨퍼런스센터 308호 (3층)  
문의: (02)793-7409 (12:30~17:30)  
WWW.KARE.OR.KR  
공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                                                                                                   |                                                                                                           |
|----------------------------------------------------------------------------------------------------------------------------|---------------------------------------------------------------------------------------------------|-----------------------------------------------------------------------------------------------------------|
| <b>방송 송출에서의 다이내믹 프로세싱</b><br>Dynamic processing on TV broadcasting                                                         | <b>이태상</b><br>MBC 문화방송<br>음향감독<br>Lee Tae Sang<br>MBC<br>Sound Supervisor                         | <b>2022년 6월 29일 수요일</b><br>308호<br>11:00 - 13:00<br>Wednesday, June 29, 2022<br>Room 308<br>11:00 - 13:00 |
| <b>OTT 스트리밍 환경에서 가정용 청취를 위한 후반작업 제작기법</b><br>Post Production Techniques for Home Listening in an OTT Streaming Environment | <b>홍영준</b><br>블루캡<br>실장<br>Hong Young Jun<br>Blue Cap<br>Post Production Engineer                 | <b>2022년 6월 29일 수요일</b><br>308호<br>15:00 - 17:00<br>Wednesday, June 29, 2022<br>Room 308<br>15:00 - 17:00 |
| <b>방송음향규정과 사운드디자인 스토리텔링</b><br>Broadcasting Loudness Regulation and Sound Design Storytelling                              | <b>이동환</b><br>서울미디어연구소(SMIT) 연구소<br>Lee Dong Hwan<br>Seoul Media Institute<br>Production Engineer | <b>2022년 6월 30일 목요일</b><br>308호<br>10:30 - 12:00<br>Thursday, June 30, 2022<br>Room 308<br>10:30 - 12:00  |
| <b>영상전송을 위한 동시녹음</b><br>Location/Recording for Moving Picture                                                              | <b>손종재</b><br>하이피디(HiPEDIA) 감독<br>Son Jong Chae<br>HiPedia<br>Location Recording Engineer         | <b>2022년 6월 30일 목요일</b><br>308호<br>13:00 - 14:30<br>Thursday, June 30, 2022<br>Room 308<br>13:00 - 14:30  |
| <b>K-Pop 음원을 통한 믹싱 노하우 분석 ('최전목마' mix session을 중심으로)</b><br>Reviewing 'Merry-go-round' Mix Session                         | <b>김상필</b><br>프리랜서 감독<br>Kim Sang Il<br>Freelancer<br>Mix Engineer                                | <b>2022년 6월 30일 목요일</b><br>308호<br>15:00 - 17:00<br>Thursday, June 30, 2022<br>Room 308<br>15:00 - 17:00  |

주최: 한국음향예술인협회(KASA)

전체 5개의 세미나를 모두 수강한다면 칠만 오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에 대한 수료증도 발급할 수 있게 하였다. 업계 관련 기업의 경우 세미나 참가비용을 지급해주시기도 하지만 세미나 참가에 대한 수료증을 요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8대 회장으로 처음 준비하는 공식행사가 KOBA 음향세미나인 만큼 업무 프로세스를 경험할 필요도 있었고, 소속 협회의 위상이 달린 만큼 강사 섭외와 흥행 여부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과거 세미나 신청자가 미비하여 소수의 인원만 모아놓고 진행 하던 경우도 목격하였고 진행의 미비 때문에 발생하는 작은 사고사례도 듣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홈페이지와 협회 SNS에 신청 자료를 올려놓았지만, 하루 약 일백여 통의 문의 전화가 도착하였고 회장 및 담당자가 직접 전화응대를 하였다. 결과는 일반적인 음향세미나에서 보기 힘든 엄청난 인원이 몰리는 흥행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협회의 위상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미나 신청자는 좌측의 포스터와 함께 세미나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단순하게 입장권만 구매하는 것이 아닌 신청자의 유형과 직업 등을 대략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유추할 수 있었다. 음향 제작과 영화 및 영상제작전공 학생 40%, 일반인 10% 관련 업계 종사자 50%의 비율이었으며 예전에는 세미나 참여자로 드물었던 관련 업계 종사자의 비율이 파격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있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의 자체 독려 및 교육지원에 힘입어 많은 참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방송 송출에서의 다이내믹 프로세싱

### 이태상 MBC 음향감독

이태상 감독은 방송 송출을 위한 레벨조정과 Noise Reduction 클리닉 그리고 방송 제작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포괄적으로 종합하여 강의 자료로 만들었다.

특히 Optimod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사고에 대한 경험담 및 방송제작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 적극적인 질문 및 답변이 있었으며 많은 비가 내리는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신청자보다 많은 인원이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예전 세미나들과 다른 점이라면 적극적인 질문과 그 질문의 수준과 난이도가 무척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도 나왔고, 발표자가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까지 존재했다는 점이 꽤 흥미로웠다. 코로나로 인한 2년의 공백으로 음향 지식과 의문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정말 크게 존재했다는 방증이다.

### OTT 스트리밍 환경에서 가정용 청취를 위한 후반작업 제작기법 / 홍윤성 블루캡 실장

홍윤성 실장이 준비한 주제는 앞으로 TV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데 있어 필요한 기술적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만큼 집대성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Youtube 또는 그 밖의 SNS나 PC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TV 시청 시간 자체가 적어지는 시점에서 TV에서 서비스하는 OTT는 업계의 돌파구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스트리밍 기반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기초 및 기술적 내용을 부족한 시간이라 생각하는 두 시간에 집대성하여 정리했다.



특히 입체음향을 위한 스피커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Dolby Atmos Renderer 설명 등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역시 일반적인 음향세미나에서 보기 힘들었던 뜨거웠던 질문과 답변 등의 시간을 통해 많은 참가자의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방송음량규정과 사운드디자인 스토리텔링 / 이동환 서울미디어대학원(SMIT) 교수

이동환 교수는 29일 세미나의 주제와 중복 내용 등을 피하기 위해 29일 미리 청강하여 세미나 상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포스트 프로덕션 실무에 대해 발표했다. 참여자들의 수준 및 눈높이를 미리 파악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당일 정교한 핀 포인트 수준의 포스트 프로덕션 콘텐츠 제작의 요점을 정리해서 강의했다. 특히 앰비언스와 다이얼로그음량 비율 및 전체 레벨 설정에 대한 내용은 책이나 유튜브를 찾아보아도 발견할 수 없는 귀중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혹시 관련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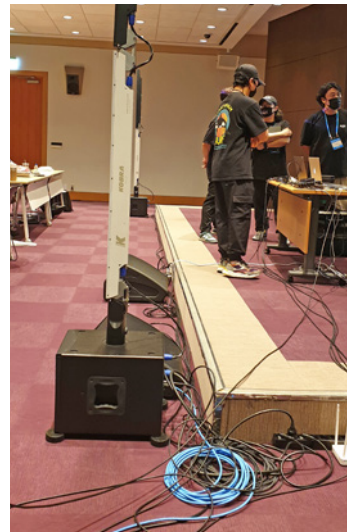
야에 대한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서울미디어대학원’이라는 교육기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다.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10:30부터 COEX 컨퍼런스 센터 308호를 가득 메운 청중들은 역시 수많은 질문을 던졌으며, 약 30분을 질문과 답변에 할애하였고 시간관계상 진행자가 부득이하게 질문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뒷정리하는 이동환 교수를 따라 수많은

질문자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 일까지 있었다. 과거의 음향세미나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질문을 독려하고 부족한 열의를 안타까워하던 그런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참여는 세미나의 열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 영상콘텐츠를 위한 동시녹음 / 손종채 하이피디아 감독



동시녹음(Location Recording) 주제에 대한 세미나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배경에서 동시녹음 감독이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부터 동시녹음에 있어 영상촬영과 어떤 식으로의 화합이 필요하며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에 대한 팁도 매우 도움이 되었지만, 초반 세팅 환경에 대한 질문을 바로 답변해주는 완전 소통형의 발표였다.

많은 질문자들이 강의 시작 전 연단에 올라와서 세팅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고 동시녹음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그리고 음향뿐만 아닌 영상 촬영 팀과의 협업을 위한 도움말, 지금 음향업계에서 종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음향직종에 근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라이프 스토리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세미나가



아닐까 한다. 역시 30분간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질문이 있었고 장비를 철수하는 와중에도 한 무리의 질문자가 손종채 감독을 따라서 질문하러 나가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완전 성공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었다.

### K-Pop 음원을 통한 믹싱 노하우 분석 / 김상일 믹싱 감독



308호의 자리를 가득 채웠을 정도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던 김상일 감독의 세미나는 김상일 감독이 믹싱하였던 인기가수 자이언티의 ‘회전목마’ 세션 파일을 정밀하게 리뷰하고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 전반에서 느낄 수 있었던 공통점은 모든 세미나 발표자들이 Protools를 사용하여 작업한 작품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방송, 포스트 프로덕션, 음악녹음 및 믹싱을 가리지 않고 모든 프로페셔널 작업환경에서 Protools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진행은 세미나를 참여한 모든 참여자에게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김상일 감독 발표에서 나왔는데, 가수 자이언티가 보컬 프로세싱 파트에서 직접 등장하여 아티스트로서 어떤 방법과 스타일로 Vocal 및 Chorus Buildup을 구성하고 믹싱 의도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같이 발표하는 장면은 그 어떤 세미나를 통틀어도 가장 생각나는 이벤트가 되었고, 집중하게 만든 경우가 없을 정도로 그 내용과 재미가 고조되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한다. 가수 자이언티의 등장은 KASA가 직접 섭외한 것이 아닌 본인의 자발적 참여였으며, 행사 당일 오전까지 본인도 알고 있지 못했고 김상일 감독의 깜짝 제안으로 성사되었기 때문에 음향세미나가 지식뿐만 아니라 재미의 요소까지 결합한 최고의 결과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200명이 넘는 참여자들은 세미나 시간이 좀 늘어나도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였으며 질문과 답변의 시간에도 다른 시간과 마찬가지로 열정적인 질문 공세를 이어나갔다. 어떤 질문은 가수 자이언티가 직접 답변해주는 경우가 있어 ‘회전목마’라는 곡의



완전한 해석을 들을 수 있는 완벽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이렇게 2022년 KOBA 음향세미나 ‘좋은 사운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KASA 세미나 중 역대급 참여자로 세미나 이틀째에는 자리를 150석에서 200석 규모로 늘려 현장 입장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자리가 부족하여 안타깝게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 정도였다. 사전 입장권 판매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세미나당 150석까지만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번 KOBA 진행사인 한국이앤엑스 담당자 역시 음향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참여자가 몰린 것에 감탄하였고, 향후 사단법인 한국음향예술인협회 세미나는 이들이 아닌 3일로 준비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음향세미나는 그 어떤 스폰서나 협찬을 받지 않았던 유일한 세미나였다. 오히려 기업 관계자나 관련자들이 직접 세미나를 방문하였고 엄청난 참여자를 보면서 다음 세미나에 기업 참여를 건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기획자의 입장에서 2022년 KOBA 음향세미나 ‘좋은 사운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의 리뷰를 마친다. 📖